

##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손순용 · 양철호

이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고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스트라우스코빈(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평균 2년 3개월 동안 재비행에 빠지지 않은 비행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13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들 개념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3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고, 최종적으로 1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이 이루어졌다. 선택코딩에서의 핵심범주는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이며,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유형은 비행환경과 단절 여부 및 의지 유무에 따라 ‘단절-의지형’, ‘단절-니약형’, ‘유지-의지형’, ‘유지-니약형’으로 도출되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재사회화 결과로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인으로 재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첫째, 보호관찰 경험을 통해 재사회화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실시하고 과정을 분석하여 실체이론을 개발하였으며 둘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과 정보가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보호관찰청소년, 재사회화, 질적연구, 근거이론

---

**손순용** 전남도립대학 사회복지과 초빙교수. sonwelfare@hanmail.net (교신저자)

**양철호**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hyang@dzu.ac.kr

## 1. 서론

청소년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이나 시설 내 처우인 소년원의 교정교육을 받으며 재사회화를 도모하게 된다. 보호 처분대상자 가운데 학교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보호관찰소와 학교, 가정의 지도 속에 사회 재적응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도에 한계가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감독만이 유일한 교정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비행이 교정되지 않으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관한 보호관찰 통계를 보면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2005년 재비행율을 보면 성인(6.3%)에 비해 청소년(9.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서 나타난 높은 재비행률은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청소년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은경, 2006: 108).

지금까지의 재사회화 교육이 재비행의 원인을 찾아 이러한 요인을 감소시켜 재사회화를 도모하여 왔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요인, 즉 재비행 유혹의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성원으로 성장해가는 재사회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강화하여 나가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보호관찰을 받았던 비행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재사회화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을 받았던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경험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 2. 연구의 이론적 자원

### 1) 비행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생물학적 나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교정과 관련된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란 용어 대신 '소년'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청소년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비행(非行, delinquency)과 범죄(犯罪, crime)의 용어를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비행이란 사회학적 관점의 용어로, 도덕이나 법규에 어긋난 청소년의 행위를 말하며, 비행에는 법적인 제재보다는 윤리적 비난이나 보호처분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범죄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최옥채(2006: 298)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벌기관과 처우시설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혼동하면, 시민들이 이들의 재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며, 개입의욕이 떨어질 것이 당연하다. 셋째, 범죄인보다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개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분명히 구분되었을 때 사회는 더욱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개입할 수 있다.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② 수감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6개월),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⑥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⑦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 시

설에 위탁,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⑩ 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행률은 전체 소년범 범죄율 36%,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 64%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으며, 소년원 수용 경력이 있던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50% 가까이 된다는 사실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는 두드러진다(이성철, 2003: 176-177; 김지선, 2002: 144; 조준현 2007: 29 재인용). 소년 재범률이 성인보다 다소 높다는 점은 그만큼 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이 철저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조준현, 2007: 29).

## 2) 비행청소년과 재사회화

성인의 사회화과정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Thio, 1996: 156-158; 이광자 외, 2001: 100 재인용). 첫째 유형은 '예기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로 미래의 역할을 미리 해보는 과정이다. 예기적 사회화와 관련된 것으로 모델링(modeling)이라고 불리는 행동이 있는데, 이는 존경하는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발달적 사회화(developmental socialization)'로, 직업훈련을 받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좀 더 유능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 유형은 '재사회화(resocialization)'로 기존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사회화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사회화에 속한다. 재사회화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잘못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이나 교정시설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재사회화는 아동보다는 성인에게 흔히 일어난다.

재사회화란 용어와 관련하여 청소년계에서는 근래에 '회복적 보호지원'이란 용어가 대두되고 있다.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적 선도(善導)'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제15조)하고 있다. 이후 이 용어는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되어 회복적 교육훈련과 회복적 처우지원으로 유형화되었다. 회복적 보호지원이란 비행이나 법률저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함으로써, 비행·범죄를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재통합시키기 위한 회복적 교육훈련과 회복적 처우지원을 말한다(이용교, 2006: 23).

### 3) 선행연구

비행청소년에 관한 제이론에 대해 최혜순(2003: 39-41)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 지향이론과 사회구조 지향이론으로 비행에 관한 기본가정을 개인 또는 가정의 조건이나 사회의 구조적 측면(빈민층 등)에 두고 있다. 둘째는 사회과정 지향이론으로 비행이란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상호관계의 질에 연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반응이론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비행이란 사회, 경제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특정의 불운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비행 자체는 나쁘거나 틀리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그 사회의 권력에 의해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 근교 소년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일탈소녀들의 재사회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정혜원, 1999)가 있으며, 여성범죄자와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이상봉, 2003),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질적연구(주영신, 2007) 등이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부산소년감별소, 1990; 대전소년감별소, 1991; 광주소년원, 1996), 이러한 연구는 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비행 발생의 요인, 재범의 요인과 예측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정혜원, 1999; 노성호, 2000; 김현수·김현실, 2001; 이상봉, 2003).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특이한 한 가지 동향은 기존의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거이론에 입각한 연구로는 '청소년이 사이

비범죄에 빠지는 과정'(최옥채, 2004),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연구'(최옥채 · 이정미, 2006),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이정미, 2007),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주영신, 2007)가 있다. 주영신은 재범 후 삶의 유형을 '삶 중심 유형', '삶 의존 유형', '삶 방관 유형', '삶 포기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에서는 제시하기가 힘든 비행청소년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한 과정을 조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의 본질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Strauss와 Corbin은 근거이론을 실체이론(substance theory)개발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체이론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념구성의 속성과 차원을 규명하고, 조건과 결과라는 구조를 도구적으로 사용하여 이론개발의 통찰력을 얻으며, 연구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론도출까지의 과정을 상호 밀접하게 진행하는 것 특히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연구인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주제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다양한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reswell, 1996; Padgett, 1998; Schreiber & Stren, 2003; 주영신, 2007: 30). 근거이론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연구과정 동안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이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비교, 코딩, 메

모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최정숙, 2003: 17-18). 근거이론의 특은 자료의 수집을 통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그리고 상황모형의 틀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적절한 이론이 없으며, 비행청소년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근거이론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지는 근거이론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소년 보호처분 중 6개월 보호관찰 처분 또는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중에서 보호관찰 종료 후 2년 동안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과거 비행의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구술해야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의지가 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먼저 연구 참여자와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이들을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확인 후 동의서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대상의 선정, 즉 표본의 추출은 G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종료 후 2년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청소년을 추천 받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 청소년은 총 10명으로, 비행의 종류를 보면 폭행 3건, 절도 및 특수절도 7건, 무면허운전이 중복으로 1건 나타났다. 보호관찰 종류로는 단기보호관찰 5명, 장기보호관찰 5명이며, 평균연령은 20.4세, 그리고 보호관찰 종료 후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기간은 평균 3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들의 면담은 보통 40분에서 90분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재면담이나 전화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 후 보조자의 타이핑과 연구자의 확인을 거쳐 면담 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lt;표 1&gt;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2007. 10. 30 현재)

구분	나이	비행 유형	보호처분	보호관찰 종료일	종료일부터 기간	현 직업
P1	22	폭행	1·3	05.04.16	2년 6개월	휴학
P2	19	특수절도	1·3	05.06.09	2년 4개월	대학생
P3	18	폭행	1·2	04.06.22	3년 4개월	고등학생
P4	19	절도	1·2	04.09.22	3년 1개월	대학생
P5	19	절도	1·2(2회)	04.11.07	2년 11개월	대학생
P6	22	절도	1·3	05.03.26	2년 7개월	자영업
P7	22	절도, 무면허운전	1·3(2회)	05.10.06	2년 0개월	아르바이트
P8	21	절도	1·3	05.03.26	2년 7개월	휴학
P9	21	절도	1·2	05.04.28	2년 6개월	휴학
P10	21	폭행	1·2	05.04.11	2년 6개월	대학생

###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개방 코딩에서는 개념의 범주화를,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과 과정분석을, 선택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이야기의 윤곽을 세우며, 가설적 유형과 함께 관계진술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지속적 비교, 이론적 표본 추출, 메모, 도표를 활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1) 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메모, 비교분석을 통하여 135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들 개념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3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의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개념추출과 개념 범주화 - 1/2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구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음	보호관찰의 시작	<시간> 단기-장기	인과 조건
보호관찰 담당자를 만남			
목표를 정하고 노력함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속성> 강함-약함	현상
현실에 충실함			
그냥 대충 살아감			
친구를 원망함	부정적 인식	<강도> 강함-약함	맥락 조건
선생님을 닮함			
사회를 닮함			
친구가 고마움	긍정적 인식	<강도> 강함-약함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			
보호관찰이 고마움			
부모님의 지지	가족의 지원	<정도> 많음-적음	중재 조건
형제·친척의 지지			
선생님의 지원	외부의 지원	<정도> 많음-적음	
여자친구의 지원			
범죄예방위원의 지원			
지역사회의 지원			
적극적 참여	보호관찰에 참여하기	<참여도> 높음-낮음	상호작용 전략
소극적 참여			

<표 2> 개념추출과 개념 범주화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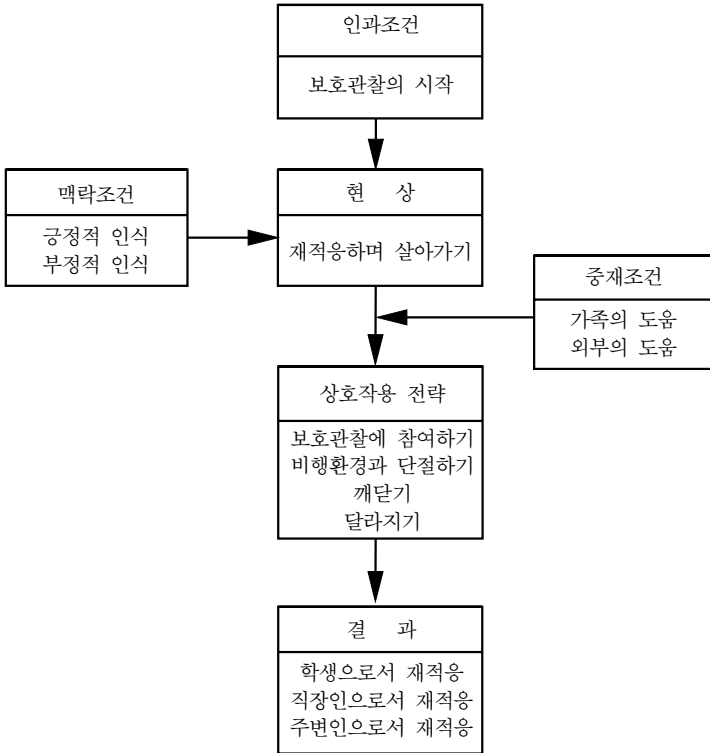
하위범주	범주	속성/차원	구분	
연락 단절하기	비행환경과 단절	<정도> 심함-약함	상호 작용 전략	
이사 또는 전학 감				
비행의 결과를 인식하기	깨닫기	<정도> 강함-약함		
법의 무서움을 인식하기				
자녀로서의 미안함				
본업에 집중하기	달라 지기	<정도> 강함-약함		
참고 견디기				
개인 사업시작하기				
학교에 꾸준히 다님	학생으로서 재적응	<정도> 강함-약함		결과
학교 밖 생활을 조심				
자기 사업에 도전함	직장인 으로서 재적응	<정도> 강함-약함		
새로운 사업을 계획함				
아르바이트하며 생활	주변인으로서 재적응	<정도> 강함-약함		
눈치보며 생활				

## 2) 축코딩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축으로 하위범주와 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축코딩에서 인과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현상은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 맥락조건은 현상에 속하는 속성으로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며, 중재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특정한 맥락조건에 의해 취해진 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며 결과는 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물이다 (Strauss & Corbin, 1998).

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개방코딩에서 추출된 개념과 하위범주 그리고 범주는 축코딩 단계에서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에 따라 인과조건, 맥락조건, 현상, 중재조건, 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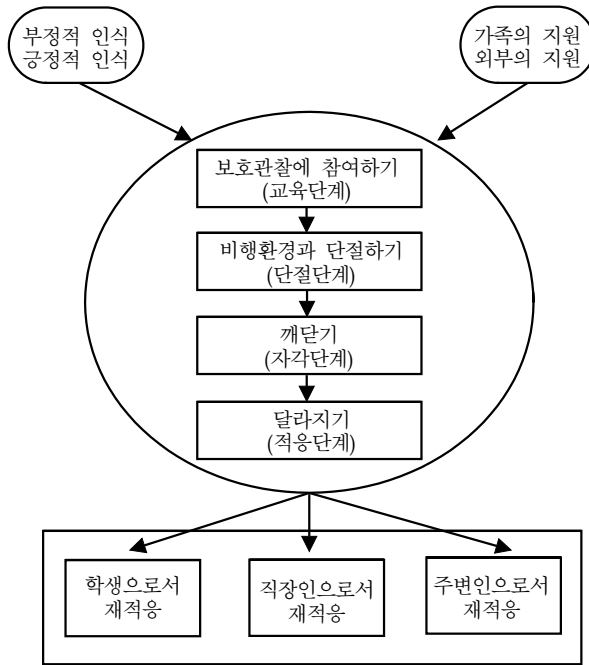
<그림 1> 비행청소년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인과조건은 ‘보호관찰의 시작’이며, 맥락조건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다. 현상은 ‘재적응하며 살아가기’이며, 중재조건은 ‘가족의 도움’과 ‘외부의 도움’이다. 재적응하며 살아가기를 위한 상호작용 전략은 ‘보호관찰에 참여하기’, ‘비행환경과 단절하기’, ‘깨닫기’, ‘달라지기’

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는 '학생으로서 재적응', '직장인으로서 재적응', '주변인으로서 재적응'이다. 개방코딩에서 드러난 13가지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해 분석한 결과 인과조건, 맥락조건, 현상, 중재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된다.

범주분석에 이어 과정분석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 시점부터 재사회화되어 살아가는 과정은 '교육단계', '단절단계', '자각단계', '적응단계'로 구분되었다. '교육단계'란 비행청소년이 법원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제반 교육을 받는 단계를 말하는데, 보호관찰담당관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면담하고 보호관찰 기간에 주의해야 할 내용과 일정 등을 알려주는 단계이다. 또한 일정 시간에 자체 강사나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인성교육이나 사회적응, 성문제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관찰소 내부나 외부의 중장기 프로그램에 위탁되기도 하였다. '단절단계'란 비행청소년이 법원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단계에서 비행환경을 단절시키는 단계를 말하는데, 단절은 외부의 힘 즉 부모의 강압에 의한 단절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단절로 나타났다. 외부의 강압에 의한 단절은, 자녀의 법원 처분에 대해 충격을 받은 부모들이 자녀 주변의 비행청소년들을 억압과 강요로 단절시키거나 심지어는 타 지역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는 일로 나타나며,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단절하는 경우는, 친구들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안 받는다든지, 만나자고 하면 일을 핑계로 만남을 회피한다든지,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이며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 두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각단계'란 보호관찰소의 면담과 교육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되고, 부모나 친척, 이웃의 꾸중이나 질책 또는 배려의 관심 속에 비행의 결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각은 결국 자신의 비행에 대해 깨닫게 되고 비행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겠다는 다짐이나, 대학의 특정 학과를 지원해 보겠다는 삶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적응단계'란 보호관찰의 경험과 교육, 비행환경과의

단절, 그리고 비행의 결과에 대한 깨달음으로 비행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의 재적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적응단계에서는 ‘달라지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주변인으로서 재비행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를 말한다.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

### 3)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서 통합은 연구자와 자료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랜 기간동안 자료에의 몰입을 통하여 축적된 전체 조사발견의 총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발전을 의미한다(Strauss & Cobin, 1998).

### 나. 핵심범주

비행청소년들은 법원의 보호처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비행청소년들은 이러한 처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보호관찰에 임하게 된다. 6개월 또는 2년의 보호관찰과 그 이후의 생활을 살펴보면,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현실에 충실하게 또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재조건은 부모님이나 친척 등 가족의 도움과 이웃 아저씨나 보호관찰관의 도움 또는 지역사회의 지원 등 외부의 도움이다. 이러한 도움 속에 재사회화를 위한 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한다. 보호관찰을 열심히 받거나 비행환경을 단절하고, 죄의 결과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이전의 비행을 멀리하고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각기 사회에 재적응을 하게 되는데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주변인으로서 사회에 재적응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결국 비행청소년들이 재사회화 되어가는 전체과정의 핵심범주는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 다. 유형분석

이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의 유형은 비행의 환경과 단절 여부 및 개인의 의지 유무에 따라 단절-의지형, 단절-나약형, 유지-의지형, 유지-나약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단절-유지형'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 비행환경이 단절되는데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친구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고 다시는 비행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형이다. 이러한 경우는 학생으로 또는 직업인을 확실하게 재적응하게 된다.

'단절-나약형'은 비행환경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나약하게 재적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개인의 의지보다는 가족이나 친척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재적응이란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하게 재적응하게 된다.

‘유지-의지형’은 비행환경과 단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지만, 보호관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를 가지고 비행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이다. 비행을 저질렀던 친구가 여전히 한 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단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서로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친구가 재비행의 유혹을 느끼면 때려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등 기존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 형이다.

‘유지-나약형’은 비행환경과 단절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면서도 비행은 저지르지 않는 경우이다. 친구들과 만남이 유지되는 이유는 ‘유지-의지형’과 같이,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거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친구와 단절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보호관찰이라는 경험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그저 의무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식의 소극적 경험에 그치고 있는 경우이다. 핵심범주에 의한 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핵심범주에 따른 유형 분석 - 1/2

구분	단절-의지형	단절-나약형	유지-의지형	유지-나약형
인과 조건	보호관찰의 시작 (실질적)	보호관찰의 시작 (실질적)	보호관찰의 시작 (형식적)	보호관찰의 시작 (형식적)
현상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강함)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약함)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강함)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약함)
맥락 조건	부정적 인식 (약함)	부정적 인식 (강함)	부정적 인식 (약함)	부정적 인식 (강함)
	긍정적 인식 (강함)	긍정적 인식 (약함)	긍정적 인식 (강함)	긍정적 인식 (약함)
중재 조건	가족지원 (많음)	가족지원 (적음)	가족지원 (적음)	가족지원 (적음)
	외부지원 (많음)	외부지원 (많음)	외부지원 (적음)	외부지원 (적음)

<표 3> 핵심범주에 따른 유형 분석 - 2/2

구분	단절-의지형	단절-나약형	유지-의지형	유지-나약형
상호 작용 전략	보호관찰 참여 (적극)	보호관찰 참여 (적극)	보호관찰 참여 (소극)	보호관찰 참여 (소극)
	비행환경 단절 (적극)	비행환경 단절 (적극)	비행환경 단절 (소극)	비행환경 단절 (소극)
	깨닫기 (강함)	깨닫기 (약함)	깨닫기 (강함)	깨닫기 (약함)
	달라지기 (강함)	달라지기 (약함)	달라지기 (강함)	달라지기 (약함)
결과	보호관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환경을 확실하게 단절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비행환경과의 소극적으로 단절하며, 가족과 외부의 지원 속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감	비행환경을 단절 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지만, 보호관찰의 경험 을 바탕으로 의지를 가지고 비행에 빠지지 않고 살아감	비행환경과 단절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의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기력하게 지내면서도 비행은 저지르지 않음
사례	2, 4번	3, 5, 7번	6, 8, 10번	1, 9번

이 연구에서의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의 상황모형은 개인수준에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속에, ‘보호관찰에 참여하기’와 개인의 의지 속에 ‘비행환경과 단절하기’ 그리고 ‘깨닫기’이며, 가족수준에서는 ‘가족의 도움’ 속에 ‘비행환경과 단절하기’이며, 사회수준에서는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 재적응하는 ‘달라지기’로 상호작용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학생으로서 재적응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재적응하거나 주변인으로 재적응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통제를 받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개인수준, 가족수준, 사회수준에서 재사회화 과정을 밟으며 살아가게 된다.

#### 4) 평가

이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사실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Strauss & Corbin(2000; 주영신, 2007: 167-170, 재인용)이 제시한 평가 기준 즉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 발견한 이론에 대한 평가, 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 연구에 관한 경험적 근거에 대한 평가이다.

첫 번째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보호관찰 종료 후 2년 동안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으로 설정하였고, 개념이 포화될 때까지 개방 코딩을 진행하여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두 번째는 연구과정에 대한 평가로, 이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에 이어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 즉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의 도출에 이어 이야기 윤곽의 전개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근거이론의 각 과정을 따라 전개되었다.

##### 5. 연구결과의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 및 의의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부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4가지 유형 중 개인의 각오와 깨달음으로 비행환경과 단절하는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단절-의지형' 청소년에게는 보다 많은 정보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의 강요에 의해 단절은 하지만 나약하게 살아가는 '단절-나약형' 청소년에게는 자존감 향상이나 자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며, 기존의 친구와 단절된 관계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멘토를 활용하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와 단절하지는 않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지-의지형' 청소년에게는 꾸준한 동기부여와 자기 관리를 통해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며, 또래 상담자 훈련을 시켜 친구들을 상담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훈련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약하게 살아가는 '유지-나약형' 청소년은 유혹의 강도가 강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함의는 1) 비행에 노출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게 된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학교에 남아 있음으로써 재사회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경우, 가능하면 학교의 틀 안에서 재사회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교정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처럼 사회에서 활동하며 도움을 주는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편안하게 접근하며 속마음을 털어 놓으며 상담에 임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이미 사회복지실천 기술 즉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사업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개입할 때, 재사회화율은 높아지리라 여겨진다.

3) 사법처리 진행 과정에의 개입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은 교정교육의 소극적 참여를 가져오며 교정교육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다. 청소년의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Correction(교정)'이라는 용어는 수사, 기소 등의 법집행 단계(Law Enforcement)와 재판 단계(the Courts), 그리고 교정 단계(Corrections)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연속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벗어나 이들 전(全)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의 의미가 강한 법사회복지(Forensic 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Young, 2001; 홍봉선, 2007:18 재인용). 로버트(Robert, 1999; 홍봉선, 2007: 18 재인용)는 "법사회복지(Forensic Social Work) 교육이란 법률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법적 측면에 대한 법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실천이며, 이것은 가정폭력, 법원, 소년사법, 성인교정, 법집행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이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사법처리 전 과정에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사례가 줄어들 것이며,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는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은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며 재사회화 방법을 찾으려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재사회화 되어 가는 긍정적 과정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론적 연구나 통계상의 연구가 아니라 보호관찰 경험을 통해 재사회화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실시하고 과정을 분석하여 실제이론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이 연구에서 드러난 핵심범주는 ‘보호관찰의 경험을 안고, 가족과 외부의 도움 속에 우리 사회에 재적응하기’이며, 인과조건, 현상, 맥락조건, 중재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고 재사회화 과정을 조망해 보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재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 단계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정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6.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사회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종료 후 2년 내에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사회화를 단지 재비행을 저지르는 않는 것으로 한정하면 그 개념이 너무 협소해진다고 할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재사회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행의 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가게 되는 소년원 퇴원 후 2년 동안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소년원의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광주소년원. 1996. 『소년원생의 재비행 예측에 관한 연구』.
- 김은경. 2006. “교육적 선도 대안으로서 회복적 보호지원의 의미와 가치.”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인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07-139.
- 김현수·김현실. 2001. “재범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분석.” 『신경정신의학』 40(2): 279-291.
- 노성호. 2000. “비행청소년의 재범예측요인.” 『비행청소년의 생활세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 pp. 43-60.
- 대전소년감별소. 1991. 『소년원 출원자의 재비행력에 관한 조사연구』.
- 부산소년감별소. 1990. 『보호처분 소년의 재비행에 관한 조사연구』.
- 이광자·엄신자·손승영·전신현. 2001. 『21세기의 사회학』. 학지사.
- 이상봉. 2003. “여성범죄와 재사회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교. 2006.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인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9-28.
- 이정미. 2007.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9(1): 63-83.

- 정혜원. 1999. "일탈소녀들의 재사회화 적응연구: 서울 근교 소년원 현장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혁. 2007.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과 과제."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35: 29.
- 주영신. 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옥채. 2004.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빠지는 과정-인터넷사기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한국사회복지학회. pp. 103-122.
- 최옥채. 2006. 『교정복지론(제5판)』. 학지사.
- 최옥채·이정미. 2006. "청소년의 재범행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33: 43-167.
- 최정숙. 2003.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순. 2003. "청소년 비행 재범 방지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청소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봉선. 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 크레스웰(Creswell, J. W). 199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6. 『질적연구방법론 : 다섯가지 전통』. 학지사.
- 파제트(D. K. Padgett).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유태균 역.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
- 슈라이어·스트렌(R. S. Schreiber & P. N. Stren).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신경림·김미영 역.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현문사.
- 스트라우스·코빈(A. Strauss & J. Corbin) 1998. *Basic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

**손순용**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대학교에서 석사, 동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도립대학 사회복지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남 담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다.

**양철호**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이다. 최근 연구로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7),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2008. 3. 31. 접수; 2008. 12. 19. 채택]